

# 한국의 현대 패션에 나타난 Togetherness 현상에 관한 연구

권진\* · 임영자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박사과정\* ·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현대는 글로벌 시대로 특정 문화의 우월주의가 아닌 문화의 상대성을 존중하면서 여러 문화들이 복합적으로 어울어져 공존하고 있다.

미국 디즈니랜드의 It's a small world나 한국 에버랜드의 지구마을에서는 세계 각국의 민속의상을 입은 인형들을 축소하여 세계를 하나로 집적시켜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세계의 어울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곳을 관람할 때 디즈니랜드에서는 It's a small world라는 노래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모여 우정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며, 에버랜드에서는 지구마을 노래로 세계의 많은 형제들이 한가족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의 하나됨을 착안하여 글로벌화된 현대 사회가 어떻게 공동체로써 어울어지는가 또한 복식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때 어울어짐은 Togetherness 현상으로 규정하고, 복식에서 나타나는 Togetherness의 성격을 연구하였으며, 연구의 범위는 한국의 현대 패션에 나타난 Togetherness 현상으로 축소하여 한국의 전통복식요소와 다른 복식의 문화요소들이 어떻게 결합되는가를 살펴보았다.

Togetherness 현상은 포스트모더니즘과 퓨전 문화를 거쳐 형성된 사회현상의 일부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은 여러 문화가 다양하게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병존하는 다원적인 문화현상이었고, 그 이후에 나타난 퓨전 현상은 이전의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적인 요소가 믹스(Mix)되고 교차하면서 혼합된 형식을 취한다. 마지막으로 Togetherness는 퓨전을 넘어 서로 믹스된 문화가 범인륜적, 범지구화, 세계화라는 합목적성을 띠고 있는 통합적인 문화라 할 수 있다.

한국의 현대 패션에 나타난 Togetherness의 특성은 시간적·공간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던

복식의 요소들이 결합하여 융화하는 믹스(Mix)과 그것에서 확대된 집적(集積)과 협력의 의미인 통합성, 믹스되기 이전에 상당한 시간적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병치하던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형성된 동조성과 교차성,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복식디자인이 모두 병존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계속적으로 이어주는 연속성이다.

한국의 현대 패션에 나타난 Togetherness현상은 시간적·공간적인 개념을 뛰어넘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나타났던 여러 가지 한국적 요소가 복합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서양과 동양을 뛰어넘어 국가의 벽을 넘어 세계각국의 디자인 요소가 함께 존재하여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Togetherness현상의 복식은 하나의 개인이 착용하는 개별적인 의상에 세계 각국의 다양한 복식요소가 결합되어 하나의 범지구적인 소지구를 표현하는 것이라 정의 내릴 수 있다.